

+

+

# 취재요청서

- 일시 : 2006년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인사동 느티나무 카페
- 제목 : 유정민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
- 문의 :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corights@jinbo.net / 017-311-4245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 016-262-8898

## 현역 전투경찰 유정민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1.

한국 사회의 인권 진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현재 1,005명(단일 사안으로 최대의 수감자, 2006년 1월 15일 통계)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이라크 파병 결정에 반대하며 강철민씨가 백일 휴가 후 복귀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현역 입영자로서 최초의 병역거부였습니다.

3.

오늘 유정민씨(24세)는 성소수자(동성애자)로서, 또 여성주의의 신념을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전투경찰 복무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려 합니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유정민씨가 전투경찰 복무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이르는 이유를 선언하는 자리에, 언론단체의 취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

+

+

## 현역 전투경찰 유정민석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1. 여는말 (진행경과 및 약력 소개)
  2. 유정민석 씨 병역거부 소견서 발표
  3. 지지발언
    -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 오재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임태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솔 (유정민석 씨 학교친구)
  4. 변호인 소견서 - 이덕우 변호사
  5. 닫는말(향후 계획 발표)
  6. 기자 질의, 응답
- 일시 : 2006년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

## 나약하고 유약한 제 안의 여전사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2006년은 주역을 공부하신 아버님의 풀이(?)대로 순탄치 못한 지난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가당착과 건강부회들로 점증되었던 병술년 개의 해는 그렇게 슬프지만 때로는 그리워질 상흔들을 제게 남겨놓을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성을 갖는 것이 미덕이며 정상으로 인지되는 세상에서 제 정체성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권리 양자 모두에 언제나 상충되곤 합니다. 그렇게 무방비로 태어나버린 제 존재를 돌이켜보면 단지 태어난 성과 반대의 성역할이 편하고 행복감을 느꼈을 뿐인데, 그 대가치곤 짊어지어야 할 짐이 무겁습니다. 별나라의 외계인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여기 푸른 지구의 ‘화성에서 온 남자’를 좋아했을 뿐인데, 때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보이즈 칼라를 하이톤으로 내질러 보는 순간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어머니의 화장품을 아버지의 것보다 즐겨 바를 때도 그것이 어떤 사회적 금기를 깨는 성질의 것이라고 알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과 압제를 예고하는, 이미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제 안의 여성의 육감으로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경쟁심이나 호승심을 단련하는 공놀이보다는 소꿉놀이나 피아노가 더 재미있었던 유년기 시절에 “여자새끼”라는 말은 제가 흔하게 들어야했던 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의 여성과 남성 모두가 실추되는 듯한 그 역설적인 조롱 투의 욕설에 그 때부터 저의 정체성은 혼돈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허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나를 살도록 하는 세상과 저울질을 해야 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흥정을 해야 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이였기에, 보호색을 띤 채 나의 초자아로 꿈틀거리는 내 안의 여성성을 양순한 사회적 동물로 길들여야만 했습니다. 나의 나약함과 유약함의 특성은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봤을 때는 겁쟁이요, 계집애 같은 괴물의 모습 이였기에,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남주인공 배역에 익숙해졌고, 억지로 스포츠맨쉽과 신사도를 계발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된 나의 정체성의 외도는 이미 본능을 잃어버린 채 고향 아프리카를 그리워하는 사파리의 맹수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처럼, 음료수 병에 꼬인 꿀벌처럼, 공기를 마시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진짜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대학에 와서 각자 자신 안의 여성성을 긍정하기도, 혹은 부정하기도 하면서 남성우월주의를 거부한다는 소위 말하는 여성주의자들을 처음 접했을 때의 기분은 제 생물학적인 성과 관계없이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의 나의 정체성을 억압하면서 그동안 내가 아닌 다른 페르소나의 가면을 쓴 채 허파가 아닌 아가미로 숨을 쉬어왔던 나의 삶은, 스스로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닌 살아졌던 것에 불과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군 입대 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군대라는 남성화된 공간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제게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송 제목처럼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국가와 군대라는 남성화된

거대한 리바이어던은 거스를 수 없는, 그리하여 결국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근엄하고 숭고한 남신의 아바타 같은 힘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철수’와 ‘영희’ 같은 신사·숙녀만 존재해야 하는 세상에서 나는 ‘철수’라는 기득권을 갖고 태어났지만 진정한 남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거부했기에, 남성의 신체를 하고 있는 나에게서 주인공 철수의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뒤떨어지고, 어리버리해서, 그러기에 싸가지 없는’ 특이하고 이상한 ‘영희 같은 놈’이라는,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하게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진짜 철수인척 하지 않으면 ‘철수들’의 무리에 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다소곳하고 다정다감한 부분을 ‘레이디 퍼스트’처럼 배려해주시기를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 즉시 퇴출의 대상이 되거나 보안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속앓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숨기지 않으면 쫓겨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전 가슴으로나 머리로나 이미 몸에서부터 남성 페미니스트이자 트랜스 젠더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와 순정 만화를 즐겨 보며 소설을 읽어도 여류 작가에게, 영화를 봐도 여배우에게 모든 감정이 몰입되고 이입되는 나는 그렇게 방향점과 지향점이 모로 가도 같습니다. 그렇게 섹스와 젠더의 괴리감을 안고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나는 스스로 진짜 어떤 것이 나인지도 몰랐지만, 의도한 바 없이 되어버린 괴물이 아니라 단지 아직은 태고적의 나는 법을 기억하는 야생의 동물처럼, 예전 시절 어머니의 화장품을 바를 때 행복감을 느끼던 경험을 잃지 않은 ‘철수와 영희들’과 똑같은 인격체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여성주의 세미나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생태여성주의)이라는 학문을 발견하였을 때는,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접속된 에코페미니즘은 소위 버려지고, 나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여성적인 것들’에게 자매애를 부여하는 학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 와서 받아들이기가 거부했던, 그러나 내 안에 이미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여성성을 하다 못 해 집계벌레나 거미 따위의 보잘것없다고 규정되어진 못 생명 모두에게서 발견해 가는 에코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세상은 단숨에 제 모든 것을 휘감았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은 학문이기보다는 운동 강령에 가깝기 때문에, 설득적이기는 하지만 논증적이지는 못한, 이론보다는 담론이라는 이성적인 비판은 전혀 감성적으로 들리지 않았고, 자연 파괴와 생태계 교란이라는 침몰해가는 거대한 타이타닉호로부터 나와 인류를 구원해줄 구명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후 이런 에코 페미니즘은 저의 신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 제각각 살려고 하는 생명체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은 세계 모든 중심주의를 온 생명 전체로까지 확장시켜주는 영성을 느끼게 주었으며, 또한 휴머니즘을 가장한 인간중심주의의 이율배반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모험감과 죄책감을 가지며 밀어내려했던 강요받던 공격적인 남성성은 남성과 여성, 또한 우리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 양쪽 모두를 충분히 황폐화시킬 수 있기에 나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것이라는 신념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거세되어야 할 것은 단지 그냥 몸에 불과한 나의 생물학적인 남성의 상징이나 혹은 “사내자식이 계집애 같은” 나의 여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독 미화되고 가치 절상된, 그러나 사회문화를 가로질러 정상으로 인식되어져 지배하고 있는 정

서인 ‘남성성’ 이라는 판단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겉이 많고 어리버리한 제 심약함이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유로는 어찌 보면 미약할 지도 모릅니다. 저는 페미니즘 운동을 위하여 플레이 보이지에 잠입한 채 바니걸로 살았던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나, 일년 반 동안이나 남장을 한 채 남성들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체험한 빈센트는 될 수 없겠지만, 남성적인 가치들을 강요하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반작용적으로 깨닫게 된 섬세한 정체성과 내 안의,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성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면, 겉이 많고 남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하는 시뮬레이션의 군사훈련조차 벌컥 손부터 떨리는, 아직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류의 ‘사내자식이 계집애 같다’ 는 그러한 ‘성적 소수자’ 로서 바라보았던 남성화된 병영문화의 병폐와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진짜 남자’ 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를 거부할까 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싸나이와 계집아이 두 부류의 성별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남성에게는 진짜 싸나이로 거듭나라고 강요하고, 여성에게는 오직 집에만 계시라고, 여성으로만 있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소위 남자답지 못한 사람들은 “사내자식이 계집애 같이…” 혹은 “너 남자 맞냐?” 라는 식으로 여성성을 비하시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남성성을 주입받도록 강요합니다. 또한 남성의 공적인 영역으로 동등하게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여자가 감히 어딜!” 이라는 식으로 이 시대 남성우월주의적인 성정치학을 들이대며 사적인 영역으로 묶어두곤 합니다. 또한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한, 혹은 남성성을 획득하지 않으려하는 남성들이나,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여성성을 따르지 않는 여성들과 같이 ‘탈중심화’ 된 사람들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는, 이를 억누르려는 강력한 구심력을 작용합니다. 이는 남성성을 획득하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예를 들면 장애인, 여성, 미성년, 성적소수자)을 제외하고 소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역사적으로 규정되어진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 의 역할에 따른 지극히 남·여 이분법적인 성별분업의 구획 짓기는 남성에게도, 또한 여성에게도 응당 불행의 굴레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우월주의적인 관점에서 규정되는 사회·문화적인 남성성은 그 모습이 때로는 군사주의로, 때론 권위주의와 위계주의로, 때론 목표 달성을 위한 진취성, 성취성 등을 가장한 호전성과 공격성으로 외양을 변태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변태된 남성성은 제게는 성폭력의 형식으로, 여성 혐오로, 호모포비아나 게이 배싱 등의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또한 ‘소외’ 나 ‘배제’ 의 양태로 다가왔습니다.

남자에게는 남성화된 남성성만을, 여성에게는 또한 젠더적 여성성만을 강요하는 국가와 사회의 성별 구획짓기식 성교육은 남성과 여성 양자 모두에게 착종과 반목과 거부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비단 저만이 아닌 인간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섹슈얼리티, 아니마와 아니무스, 기질, 특질, 감수성들을 발현시킬 수 없게 하는 억압기제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러한 젠더 구획짓기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이자, 젠더 구획짓기의 피안에 있는 게이인 저의 신념은 오로지 천편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남성성을 훈육, 교육시킴과 동시에 재사회화 시키는 군대를 거부하려 합니다.

“여성은 두 개의 유방으로 태어난다. 하나는 페미니즘이며 또 다른 하나는 베지테리아니즘이다.” 라는 생태여성주의자인 프루다 시즈카의 명제처럼 제 성 정체성이 오버랩한 여성은 마냥 희생해야 하는 약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인류를 먹여 살리는 젓줄을 지닌 채 상생과 공생의 힘을 가진 아마존 밀림 숲의 여전사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때문에 ‘남자도 아니다’, 혹은 ‘남자답지 못하다’ 는 조롱에, 외유내강과 정중동의 힘을 가진 제 안의 여전사는 저항했습니다.

‘성적 소수자’ 인 제가 소수자적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본 세상은 오히려 남성우월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스스로야말로 겉과 속이 뒤집힌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세상 이였습니다. 여성을 성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동일한 인간으로 보기에 그들의 고통과 교통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했기에 나약하고 심약하다고 배척당하는 모든 소수자, 타자화된 것들에 대해서 조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매애’ 보다는 ‘전우애’ 를, ‘상생’ 과 ‘공생’ 보다는 상멸과 공멸의 결말을 가진 군사주의와 남성우월주의적인 군대를, 제 안의 겁 많고 어리버리한 여전사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 유정민석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회원
-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이반들의 모임 ‘붉은 이반’ 회원
- 한국 채식연합 회원
- ‘에코 포럼’ 학생 참가단
- 동국대학교 생태주의 동아리 ‘에코토피아’ 부회장
-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산하 여성주의 소모임 ‘아울아리’ 회원
- 동국대학교 환경주의 소모임 ‘환경학생연대’ 회장
- 동국대학교 이반 모임 'DGU evan게리온' 운영자
- 학내 채식식단 설치 건의, 도입
- 2005 청소년 이반활력캠프 스태프
- 채식주의 퀴어 [Vegqueer] 무지개 밥상 회원
- 채식과 환경을 생각하는 게이 소모임 Eco Queer! 운영자
- 안티 성폭력 페스티벌 ‘포르노 포르나’ 참가, KBS TV 문화지대 인터뷰
- 동성애자 인권연대 회원

## “ 민석아, 네 마음을 우린 알아. 사랑해! ”

- 유정민석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우리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은 동성애자 유정민석의 용기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극적 지지한다.

우리가 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일 뿐 아니라, 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있었을 사회적 성역할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치열한 성찰로, 또 이성애중심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며 섬세하게 가다듬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예민한 감각으로, 자신의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폭력적인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가 주체적으로 내세우는 여성성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로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체화하고 의미부여한 여성성이다. 그는 자신에게 깃들여 있다고 인식하는 여성성의 의미를 자아에서 세계로 확장시켜 사랑과 나눔, 보살핌의 질서로 재구성해내고 있다. 그러한 신념과 감정의 체계를 깊게 내면화한 그에게 군 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호전적인 환경에서 폭력과 살생의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극악무도한 만행이다.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병역은 단지 국가로부터 부과되는 의무이긴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남성을 ‘정상적 남성’, ‘사람이 된 인간’, ‘올바른 국민’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을 병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 또한 군이 신체검사서에서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규정하여, 동성애자를 병역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의 사회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다시 말해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 유지와 조화로운 발전을 극심하게 위해하는 군대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민 속에서 형성한 사상과 세계관에 의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헌법적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당당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은 즉각 유정민석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현재의 제도를 혁신하여 조속히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라. 유정민석은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여,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존재들에게까지 확장된 자신의 내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뼈아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치열한 자아이다. 복무 중에 병역을 거부하여 발생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내면과 양심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는 용기 있는 자이다. 그렇게 자기 양심을 결연히 지키려는 그에게 계속해서 군 생활을 강요하거나 처벌한다면 성소수자들의 결연한 분노와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

아울러 당국은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받으며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그리고 반인권적 동성애 행위 처벌 조항인 군형법 제92조를 폐지하고,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규정한 국방부령 제556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내용을 즉각 삭제하라. 또한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군대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인권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 현실적으로 위협적인 조건에서 복무해야 하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계속 행사한다면 군대가 인권을 짓밟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오명을 결코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유정민석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지지를 표한다.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강제로 부과된 양심에 반하는 병역 이행을 전 존재를 걸고 거부하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유정민석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격려와 연대의 의지를 보낸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로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6일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

+

+



## 정부는 시급히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유정민석 씨의 선택을 존중하며

오늘 병역거부를 선언한 유정민석 씨는 동성애자로서 부대 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위계서열을 바탕으로 한 집단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월 15일,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의 군부대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계간(동성애 행위)’을 금지한 군 형법 92조(위반 시 1년 이하 징역형)와 동성애를 ‘질병 및 심신장애’로 규정한 징병신체검사 규칙(국방부령 제 556호)은 동성애 혐오,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서 “성적소수자의 생존권,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군 형법 92조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동성애자의 병역거부도 현역병의 병역거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3년 7월, 임태훈 씨는 자신의 병역거부 소견서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비정상인으로 취급하고 이들을 배제하는 곳인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같은 해 11월에는 현역 군인이었던 강철민 씨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기 때문에, 한국군 파병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선택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적도 있다. 유정민석씨 또한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커밍아웃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현역병의 신분으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

병역을 수행중인 군인신분일지라도, 전쟁범죄를 금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군조직의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행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본항목이다.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77호를 통해 “복무중인 군인일지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바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이며 이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복무중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국방개혁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현대적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한국 정부와 국방부가 유독 병역거부사안에 대해서는 구시대적인 국가안보논리를 내세우며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 연대회의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작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도입 권고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병역법 중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없는 군당국에 대해서 앞으로 성적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여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희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 현재까지의 경과

2005년 8월 경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신 임태훈 씨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문의함.

2005년 9월 경 해군을 지원하였으나 면접 1주일 전에 지원을 취소함.

2005년 9월 22일 육군 군 입대, 입소대대에서 실시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문항 중에서 ‘나는 동성에게 매우 강한 매력을 느낀다.’, ‘내가 여자였으면 하고 바랄 때가 가끔 있었다.’,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었던 때는 한번도 없었다.’ 등의 문항에 반대로 체크함.

2005년 9월 25일 훈련소 입소.

2005년 11월 1일 훈련소 퇴소, 충주중앙경찰학교로 차출. 경찰학교에서 권인숙씨가 군대내의 남성우월주의와 동성애, 동성 간 성폭력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쓴 ‘대한민국은 군대다’와 탈주의 철학을 다룬 이진경 씨의 ‘노마디즘’이라는 책을 읽고 강철민 씨처럼 도중에 복귀 거부한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봄. 허나 곧 지워버림.

2005년 11월 17일 서울 도봉경찰서로 자대 배치. 자대 배치 첫날부터 내무실 생활을 통해 어떤 닥쳐올 공포심을 자각함.

2005년 11월 17일~22일 경 2년이라는 군 생활을 버틸 자신이 없었기에 의병 제대 내지는 부적격 제대를 결심함.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상담, 상담원은 진단서를 발급해야 진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음.

2005년 11월 22일 경찰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의뢰를 했으나 정신과는 다른 병과와는 달리 당일 진료는 불가능하고 예약을 해야 지휘관의 동행 하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함. 이에 일단 예약을 하고 부대로 돌아와 소대장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제대를 희망한다고 말함. 대신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것을 말함. 아버님께는 일단 나중에 일이 끝나면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함. 소대장은 그러마고 약속함.

2005년 11월 22일~29일 동인련에 전화 연락, 현 상황을 말하고 회원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냐고 문의함.

2005년 11월 29일 1차 진료. 동성애자이고 여성성이 강해서 전투적인 남성성을 강요받는 군복무가 힘들다고 말함. 의사는 왜 병무청과 입소대대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나 군의관 상담에는 애초에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성 정체성과 동성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군복무가 힘든 요인을 정리해서 자필로 쓴 성장기를 다음 진료일에 제출하라고 함.

+

+

2005년 12월 1일 2차 진료, 유아기와 청소년기 시절의 나에 대해서 의사의 질문과 답변함. 자필로 쓴 성장기 제출.

2005년 12월 1일~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전화 상담했던 내역을 병원에 제출하기위해 정보공개요청을 우편으로 신청. 동인련 사무실에 방문해서 회원증명 양식을 받음.

2005년 12월 15일 경찰병원 2차 진료. 동인련 회원 증명서 제출. 의사는 가족사항과 사회, 학교생활 등에 대하여 질문함. 기타 증빙자료가 구비되면 다시 오라고 함. ‘로르샤흐’ 심리검사 예약. 입원을 희망해서 요청했으나 본인은 자살우려자 같은 극도의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는 대신 병가를 위한 임시용 부대 제출 진단서를 먼저 끊어주고 의학적인 소견이 완성되면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함. 이날 부대에서 소대장은 니 말만 듣고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을 수는 없으며 책임소지도 있기에 자신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를 해보고 알릴 것인지를 판단하겠다고 함. 성적 지향을 명기한 인권위의 상담원들의 판단을 믿었기에 그렇게 하라고 함.

2005년 12월 19일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로르샤흐’ 검사 실시. 결과는 1주일 후에 나온다고 함. 이즈음 부대에서 구타 경험(1회.) 이로 인해 항거하였으나 부대에서 신참이 버릇없다고 따돌림 받음.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자체 구타 및 가혹행위 설문 시 병 상호간에 부대원들끼리 설문을 하는 것을 보고 황당하여 지휘계통에 항의함. 익명으로 소원수리 하였으나 모두 알게 되어 가시적인 린치는 수그러들었으나 은근한 따돌림은 더욱 심해짐.

2005년 12월 22일 경찰병원 3차 진료.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자료 제출, ‘로르샤흐’ 검사결과 군복무에 부적합하고 불안, 우울증증세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검사결과 나옴. 본인은 병가를 위한 부대제출용 진단서를 임시로 발급받음. 병가기간 중 초, 중, 고 생활기록부를 띠어오라고 함. 의사는 부대에서 수도통합 병원에 진료를 의뢰했냐고 물어봄.

2005년 12월 23일 부대에서 이날 부대에선 애초의 말과는 달리 인권위 상담은 하지 않았고 병가의 결재라인 상 아버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규정상 알려야 한다고 함. 어차피 계속 숙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대안은 없었기에 기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부대에선 바로 이날 아버님을 호출하고 동행 하에 병가 휴가증 발급을 허가 해줌.

2005년 12월 23일~31일 병가기간 중 흐르는 물 형 만남.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회원양식 이메일로 받음. 또한 학교를 방문해서 생활기록부를 경찰병원 제출용과 수도병원 제출용 2통씩을 발부받음.

2005년 12월 29일 아버지와 동행하여 경찰병원 진료, 생활기록부 제출. 아버지는 의사에게 부대제출용 진단서내용을 질문하고 그동안의 경위를 질문함. 의사는 과거에는 문혀져 있다가 요즘에는 수면위로 나왔을 뿐이지 그동안 사회생활을 잘 해왔으니 안심하라는 식으로 말함. 병사용 진단서가 아직 미완성되었으므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함. 의사는 아마 의가사 제대가 아닌 부적격자 제대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나 혼

+

+

+

+

란을 줌.

2005년 12월 31일 부대 복귀. 그동안의 병원증빙용 사본서류들을 부대에 제출함.

2006년 1월 2일 경찰병원 진료. 병사용 진단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오늘 중으로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부대에 복귀해서 기다리면 완성 되는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함.

2006년 1월 5일 경 병사용 진단서 발부받음. 부대에서는 수도통합병원에 재심을 의뢰.

2006년 1월 18일 수도통합병원 신경과와 신경정신과에 진료. 군의관에게 경찰병원에서 발부받은 진단서와 부대 지휘관의 소견서, 생활기록부를 제출. 군의관은 동성과의 성관계와 성관계 할 때의 성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더니 이고 DSM-IV를 근거로 ‘성 대상 선호장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며 ‘성 주체성 장애’는 전역 사유가 되지만 본인은 여성 지향이 있긴 하지만 약한 동성애자이고 ‘성 주체성 장애’는 생물학적으로도 식별이 되어야 할 정도이며, 현재도 전방에서조차 나 같은 동성애자들은 군복무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전역 사유가 되었으나 현재는 라이프스타일로 보기 때문에 전역 사유로는 힘들 것 같다고 함, 경찰병원에서 오진을 내린 것 같다는 견해를 표출하였음. 증빙한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자료를 보더니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함. 허나 그것 역시 정확한 답변은 유보하고 소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역여부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내비침. 검사결과는 한달이나 한 달 후에 통보한다고 함. 당일 오후 아버지와 소대장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으나 정확한 속마음은 밝히지 않음.

2006년 1월 19일 강철민 씨의 경우를 알고 있던 본인은 휴가 중 복귀거부를 할 요량으로 부대에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신병관리기간 등의 규정상 힘들고 대신 원칙대로 나오는 외박을 첫 파트로 앞당겨주겠다고 함. 허나 어떤 변수나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 때문에 아득하게 느껴짐. 이에 예정되어있는 설날 특별외출을 이용해야겠다고 판단.

2006년 1월 30일 설날 특별 외출 나옴. 임태훈 형에게 연락, 병역거부 의사를 피력하고 이후 중앙당사에 정처. 복귀시간이 지났기에 더욱 부대에 복귀하기가 싫었으나 소대장과 병가를 약속받았고 당장 제 단체들의 도움을 얻기도 너무나 촉박하다는 판단으로, 또한 다른 경우의 수를 고려해봐야겠다고 결론을 짓고 일단 소대장과 부대에 복귀하기로 함.

2006년 2월 1일 부대 복귀. 미복귀자는 징계의 대상이나 징계를 받지 않음. 이야기한대로 병가를 약속받음. 병가를 허가해주는 대신 본인 역시 다시 복귀거부나 병역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함.

2006년 2월 2일 지휘계통상 중간단계까지 결재가 난 상태였으나 간부들 중 미복귀자에게 왜 징계를 하지 않고 휴가를 써주냐는 반대기류가 있었음. 이즈음 이반 친구에게 들은 내용인데 부대에서 미복귀로 인해서 본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게이인 사실을 숨기고 복무를 하는 친구들의 부대에 전화함. 게이 친구들에게 본인이 게이인 사실을 말하며 친구들도 게이냐고 물어보았다고 함. 게이라는 사

+

+

+

+

실을 숨기고 군복무를 하던 친구들이 원치 않는 커밍아웃의 위험 느낌.

2006년 2월 3일 아버님 동행 하에 1개월간 병가 경찰서장 결재 떨어짐. 현재 병가 중. 3월 2일 오후 8시로 복귀예정일이 잡혀 있음.

2006년 3월 6일 월요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예정.

+

+